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2019년도 5급 공채(행정고시), 연세대·성균관대 역대 최다 성과

- 연세대 50명·성균관대 31명 최다 기록
- 서울대 75명...전년대비 14.8% 감소해
- SKY대학, 63%→59.3%로 '60%'선 붕괴

2019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행정)에서 서울대의 쏠림현상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연세대와 성균관대가 역대 최다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두각을 드러내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카이스트, 서울시립대, 경희대, 중앙대 등의 대학도 선전한 반면 고려대, 이화여대, 부산대 등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대학별 현황 결과 눈에 띄는 특징은 연세대와 고려대의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점이다. 그동안 양 대학의 수치는 '한 자릿수' 격차로 앞치락뒤치락 순위 경쟁을 펼쳤지만 올해는 연세대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률저널이 지난 2일 발표된 2019년도 행정고시 최종합격자 270명(전국모집 237명, 지역모집 33명)의 신원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들 합격자의 학부 출신대학(합격자 본인의 설문조사 기재 기준)을 보면 서울대가 역시 압도적 1위를 지켰다. 하지만 올해 서울대 합격자는 75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하며 30% 선마저 붕괴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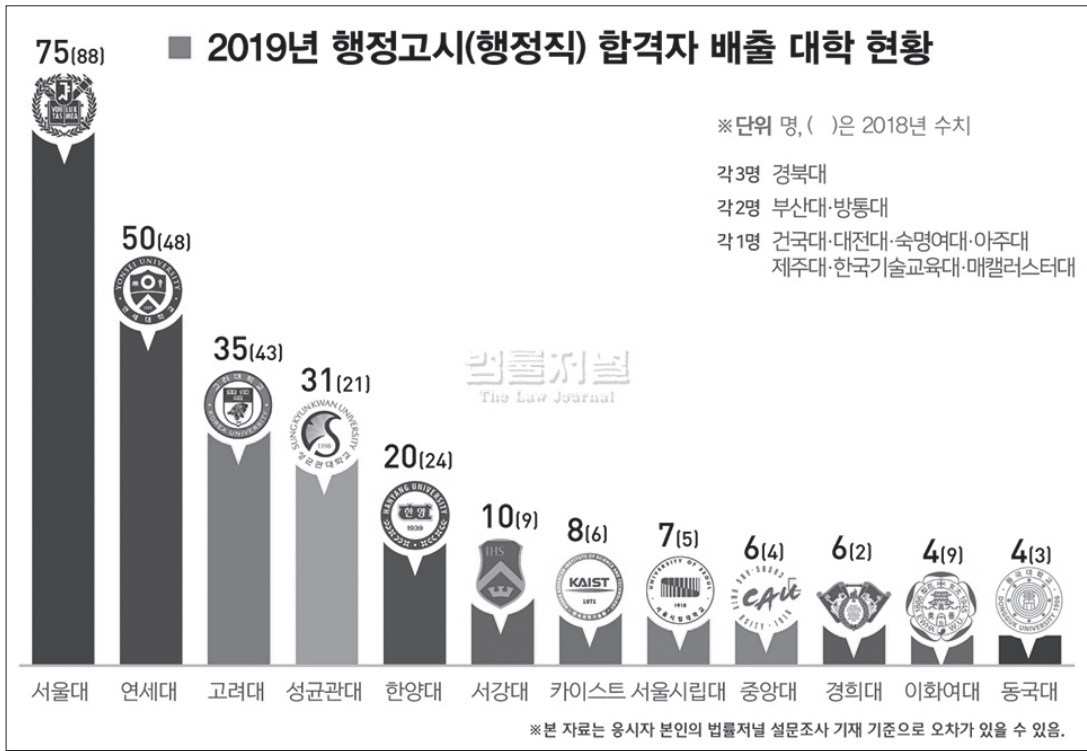
서울대의 이 같은 합격자 수는 지난해(88명, 31.0%) 대비 13명인 14.8%포인트 감소

한 수치이며, 합격자 비율 또한 3.2%포인트 줄어든 다소 부진한 결과다.

최근 서울대의 합격자를 보면 2009년 35.7%(87명), 2010년 34.6%(92명), 2011년 33.1%(86명), 2012년 30.3%(81명)로 줄곧 감소세가 지속했지만 그래도 30%선은 유지했다. 2013년에는 36.8%(100명)로 크게 반등했으나 2014년(31.6%, 94명)에 2012년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15년(33.6%) 또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서울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하지만 2016년 28.1%로 30% 선이 무너지면서 근래 들어서 가장 저조한 결과를 보이면서 서울대의 자존심은 상당히 구겨졌다. 2017년(36.4%) 또다시 2013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서울대의 위엄을 재현했다가 지난해 31%로 낮아졌다. 올해는 30%선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올해 행정고시 연고전은 연세대가 고려대를 여유 있게 따돌리며 3연패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연세대는 올해 50명(18.5%)의 합격자를 내면서 지난해(48명, 16.9%)보다 1.6%포인트 증가하는 선전을 보



이면서 2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2017년 연고전은 간발의 차이로 연세대가 고려대를 누르며 8년 만에 2위 탈환에 성공했다. 연세대는 2010년부터 7년 연속 고려대에 뒤처지면서 ‘고상연하’(高上延下)가 굳어지는 형국이었지만 2017년 연세대가 1명 차이로 앞서면서 ‘연-고대’ 순으로 되돌리고 지난해는 고려대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2위 자리를 수성했다. 올해는 ‘두 자릿수’ 격차로 고려대를 따돌리며 ‘연상고하’(延上高下)로 굳혀가고 있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에서 연세대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고시반의 체계적인 지원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연세대 고시반은 PSAT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합격자와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수요에

따라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 응시 횟수를 크게 늘렸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1차 합격자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최종 합격자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연세대의 성과에 관해 연세대 김용호 학생복지처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상당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전략적 수험계획 수립 지원 및 수험생과 합격자와의 유기적 연계,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난 7년간 2위의 아성을 굳혔던 고려대는 최근 3년 연속 연세대에 발목이 잡히면서 2위 탈환에 실패했다. 올해 고려대는 35명(13.0%)으로 지난해(43명, 15.1%)보다 2.1% 포인트 감소하면서 2017년(35명, 12.7%) 수

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올해 연세대에 ‘두 자릿수’ 차로 뒤처지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됐다.

이처럼 최근 고려대가 부진한 것은 학생들 사이에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시반을 총괄하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지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 따라서 담당 조교의 관심과 열정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고시반 학생들은 고시반의 PSAT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경쟁 대학보다 PSAT 전국모의고사 응시 횟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1차 합격자 수도 당연히 줄고 있다고 분석한다.

올해 행정고시에서 최대의 성과를 거둔 대학은 성균관대다. 성균관대 올해 합격자 수는 31명(11.1%)에 달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두각을 드러냈다. 이는 지난해(21명, 7.4%)보다 무려 10명이나 증가하면서 비율도 ‘두 자릿수’로 올랐다.

그동안 성균관대는 20명대 수준의 합격자를 냈지만, 올해는 역대 최다 합격자 수를 기록하며 최초로 30명대 합격생 진입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면서 3위 고려대를 바짝 추격했다.

성균관대도 올해 크게 두각을 나타낸 것은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덕이라는 평가다. 최근 성균관대는 1차 합격자를 늘리기 위해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 참여뿐만 아니라 PSAT 하프 모의고사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성균관대의 괄목할만한 성과에 관해 김상태 성균관대 글로벌리더학부 교수는 “성

균관대학교에서 5급 공채(행정고시) 합격자 수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는 ‘학습공동체’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합격한 선배들이 수험 준비 중인 학생들의 답안을 꼼꼼히 채점하고 피드백을 주며,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한양대는 부진하면서 4위 자리를 성균관대에 내줬다. 올해 한양대는 20명(7.4%)으로 지난해(24명, 8.5%)보다 감소하면서 순위도 5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다. 한양대는 그동안 4위 자리를 놓고 라이벌인 성균관대와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왔지만 올해는 성균관대의 두각에 밀려 완패했다.

올해 행정고시 합격자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들 상위 3개 대학의 쏠림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를 제외한 서울대와 고려대의 부진으로 이들 SKY 대학의 출신은 160명인 59.3%로 지난해(179명, 63%)보다 3.7%포인트 감소했으며 2016년(163명, 58.6%)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SKY 대학의 비율을 보면 2012년 66.7%, 2013년 67.6%, 2014년 60.9%, 2015년 64.6% 등으로 등락을 보였지만 줄곧 6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6년 58.6%로 60%선이 무너졌다가 2017년부터 또다시 60%대로 회복했지만 올해 또다시 60%선이 무너졌다.

서강대는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10명(3.7%)으로 지난해(9명, 3.2%)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늘렸다. 순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위를 지켰다. 최근 서강대는 2017년 8명(2.9%), 2018년 9명(3.2%), 2019년 10명(3.7%)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강대에 이어 카이스트도 올해 선전했다. 카이스트는 8명(3.0%)으로 지난해(6명, 2.1%)보다 증가하면서 순위도 8위에서 7위로 한 단계 올랐다.

서울시립대, 중앙대, 경희대도 올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립대는 2017년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데 그쳐 순위권 밖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해 5명(1.8%)의 합격자를 내면서 9위로 꺾충 뛰면서 'Top 10'에 들었고 올해도 7명(2.6%)으로 늘면서 순위도 8위로 올랐다.

서울시립대에 이어 중앙대와 경희대가 각 6명(2.2%)으로 나란히 공동 9위에 올랐다. 중앙대는 지난해 4명으로 10위권 밖에 머물렀으나 올해 6명으로 증가하면서 10위권 진입에 성공했다.

경희대 역시 지난해는 2명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올해 6명으로 꺾충 뛰면서 중앙대

와 공동 9위에 랭크되는 선전을 보였다. 지난해 3명에 그쳐 10위권에 들지 못했던 동국대도 올해 4명으로 늘면서 10위권 진입에 성공했다.

지방거점국립대학 중 경북대가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경북대는 올해 일반행정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지방 명문 국립대의 자존심을 살렸다는 평가다.

이 밖에 합격자 배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학은 부산대와 방송통신대학이 각 2명의 합격자를 냈다. 특히 방통대가 올해 2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관심을 끌었다.

이어서 건국대, 대전대, 숙명여대, 아주대, 제주대,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각 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외국대학인 매캘러스터(Macalester) 대학 출신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출처/법률저널)